

게 더 크게 베풀라 당신을 인도해주시니 말이에요.”

나는 마르그리트와 이는 사이였고, 비록 내가 머무는 곳은 여기서 1리외● 반 정도 떨어진 긴산 너머 숲속이었지만, 나는 그녀와 이웃이라 생각하며 살았다네. 유럽 도시에서는 길 하나가, 한낱 담벼락이 한집안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수년 내내 가로막고 있지만, 새 식민지에서는 그저 숲이 있고 산이 있어서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제 이웃으로 여기거든. 특히 그 당시는 이 섬이 인도와의 교역도 거의 없던 시절이라, 이웃지간이기만 해도 친구라 칭하기 충분했고, 이방인을 향한 환대는 의무이자 기쁨이었지. 이웃에게 벗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 그녀를 만나러 갔네. 나는 라 투르 부인에게서 기품과 우수가 서린, 어딘지 매력적인 표정을 가진 인물을 보았네. 당시 그녀는 막 출산을 앞두고 있었지. 나는 두 부인에게 훗날 아이들에게 유익하도록, 또 특히 다른 주민이 이곳에 정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 면적이 약 20아르팡●●에 해당하는 이 분지를 두 사람이

● 대서양 연안의 세네갈 및 감비아에 거주하는 민족.

●● 레다(L???da)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파르타의 왕 틸다레오스의 아내.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유혹되어 임신한 뒤 두 개의 알을 낳았고, 하나에서 헬레네와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다른 하나에서 폴리데우케스와 카스토르 형제(제우스의 자식들이라는 의미의 디오스쿠로이 형제로 불림)가 태어났다는 설이 있다. 레다의 아이들은 남다른 우애를 과시했으며, 특히 디오스쿠로이 형제가 이다스와 린케우스 형제와의 결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되자, 제우스는 폴리데우케스만을 올림포스로 데려가 불사신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카스토르만 하계에 두고 헤어질 수 없었던 폴리데우케스는 제우스에게 쌍둥이 형제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제우스는 이를 받아들여 형제가 함께 일 년의 절반은 하계에서 절반은 올림포스에서 지내도록 허락하였다. 훗날 제우스는 쌍둥이를 하늘로 올려 보내 별자리(쌍둥이자리)로 만들었다.